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16 일 (2025 년 6 월 12 일)
토라 부분: 베할로테하
주제: 위엄에 대한 망상, 1 부

미드라쉬는 "이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 (시편 24:7)라는 구절에서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왜 솔로몬 왕은 송축 드려야 할 거룩하신 분, 여호와를 "영광의 왕" 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떠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를 생각해봅니다. 인간인 왕과의 관계에선 백성이 왕의 말을 타거나 그의 왕좌에 올라가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YHWH 의 왕좌에 앉아 왕이 되게" 하셨고 (역대상 29:23), 엘리야에게는 그분의 말을 타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에 관하여는 "그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으며,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라" 나훔 선지서 1:3 의 기록과 함께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열왕기하 2:11 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왕의 홀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홀을 모세에게 주셨음을, "모세는 엘로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출 4:20)는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에서도 왕의 홀이 내밀어 질 때에 그 앞에 선자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었고 (에스더 4:11), 모세 역시, 또한 그의 대리인 아하론 역시 엘로힘의 지팡이를 사용해 이집트 전역에서 여러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인간 왕을 통치자로 둔 경우에는 그의 왕관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자신의 왕관을 그가 기름 부으심 주신 마쉬아흐께 왕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분의 왕관이란 무엇인지를 정검합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라고 아가 5:11 에 기록하며, 또 "여호와시여, 그의 머리에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 라고 시편 21:3 에 기록합니다.

또한 인간 왕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능력을 부음 받은 자들, 이스라엘은 송축 받으실 거룩하신 분 여호와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스스로 띠를 띠셨도다" (시편 93:1)라 기록 하였으며, 이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29:11 에 증거 합니다

인간 왕의 경우에 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왕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면 이 경우에 반역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축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다." 이는 "바로가 말하기를,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 (에스겔 29:3)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미드라쉬는 또한 바로 외에도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며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온 왕이 네 명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들 넷은 두로의 히람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미츠라임(이집트)의 바로, 유다의 요아쉬 왕입니다.

A Daily Bread

미드라쉬는 이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 받았다고 착각한 이유는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들 각자에게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축복이 엘로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졌고, 결국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히람은 특별한 장수를 누렸습니다. 베레쉬트 라바(85 장 4 절)에 따르면, 히람은 느부갓네살과 동시대 인물이며, 다윗 및 솔 솔로몬과 친분이 있던 인물과 동일한 자로 간주됩니다 (열왕기상 5:15).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는 거의 500 세에 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히람은 성전 건축 시 솔로몬을 도와, 목재와 장인들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성공했고, 그는 큰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미드라쉬(얄쿳 시모니, 에스겔 §367)는 히람이 바다 위에 세운 장엄한 구조물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일곱 하늘을 본뜬 형상이었으며, 그 위에 그는 자신의 왕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엘로힘에 비유했으며, 엘로힘의 왕좌가 일곱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왕좌도 그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를 불멸의 증거로 내세우며, 수많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들을 살아서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바를 아낌 없이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얻는 성취를 마치 스스로가 다 이룬 것 처럼 높이며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의 망상은 멸망의 길로 추락 될 문을 열게 합니다.)

샬롬.